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파헤친 책들

가족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비판한 책들 눈에 띄어...

가족의 기능변화와 해체과정에 초점 맞춰

‘신성가족’에 대한 해체작업이 활발하다. 최근 서점가에 나온 가족 관련 책들은 가족의 기원을 원점에서 묻거나 가족 이데올로기가 구성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들이 많다. 이런 ‘가족 뒤집어 보기’가 줄을 잇는 것은 이제 가족사회가 위기를 넘어 해체 내지 붕괴로 치닫고 있다는 데 대한 절박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즘 서점가에서 ‘가족 뒤집어 보기’ 바람이 불고 있다. 가족 이데올로기 뒤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권력의 음모를 분석한 책이 있는가 하면, 문학 작품에서 가족의 서사를 통해 여성의 주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따지는 책도 눈에 띈다. 또한 대중매체와 디지털 시대에 방향을 잃고 있는 가족의 위기를 진단한 책들도 독자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사실 가족은 출판계의 단골품목이었다. 봉건적, 가부장적 뿌리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둘러싼 담론은 우리의 사회적 의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가족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가족이 위기를 넘어 해체 내지 붕괴로 치닫고 있다는 데 대한 절박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 이데올로기는 국가적 동원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하다’는 명제는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다이애너 기틴스의 《가족은 없다》(안호용 외, 일신사)는 가족관념에 대한 부정과 의심에서 출발한다. 현재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단일현상이 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역사적, 인류학적, 현대적 연구들이 제각기 다른 결과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명한

것으로 여겨 오히려 명료하지 않은 가족개념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질문한다.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권명아, 책세상)는 이런 물음을 가족담론의 기원과 형성과정에서 찾는다. 이 책은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세계사), 이경자의 《사랑과 상처》(실천문학사), 신경숙의 《외딴방》(문학동네) 등의 작품에 형상화된 가족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가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추적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가족은 ‘혈연의 끈끈한 정’ 때문에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은 자신들의 배타적 권리를 수행하기 위한 권력의 장으로 기능해왔다고 비판한다. 이 책이 문학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해 가족 이데올로기를 파헤쳤다면, 《가족주의는 야만이다》(이득재, 소나무)는 가족이 국가의 동원체제에 종속됐음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지은이는 가족을 동원하는 국가를 파시즘적 체제라고 공박한다.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가족에 호소함으로써, 가족을 경제적인 동원 대상으로 전략시켰다는 것이다. “눈물, 정, 민족애 등에 호소하는 것은 모두 파시즘이 동원하는 방식이고, 국가는 경제적 위기를 구실로 가족에 직접 파고들어 책임을 전가한다”고 이야기한다.



위의 책들이 가족 담론이나 가족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면, 현대의 사회적 변화가 가족에 미친 영향을 살핀 책들도 나와 있다.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변화순 외, 한국여성개발원)는 한국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의 초상화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가족형태, 구조, 기능 및 관계의 측면에서 가족 변화의 전체적 흐름과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여성의 역할과 지위변화를 변인으로 가족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행위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해석해 미래 가족을 전망하고, 정책의 방향까지 제시해 현재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세계사적 지평에서 가족의 위상 바라본 책들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다. IMF구제금융 때 넘쳐났던 노숙자, 이혼율 증가, 가출청소년의 증대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경제위기와 가족》(안병철 외, 생각의나무)은 경제가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MF 이후의 경제위기와 한국 가족의 상관성을 경제생활, 가족관계, 가부장제, 정신건강, 가족해체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대중매체가 가족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농경시대 가족 공동체를 밀어낸 것은 텔레비전을 위시한 대중매체였다. 《대중매체와 가족》(이동원 외, 양서원)은 가족 내의 갈등의 원인과 갈등해소의 방법을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대중매체 속에 표현된 가족에서 이끌어낸다. 지은이는 대중매체 속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지나치게 병적이거나 특수한 극소수의 가족이 아닌 일반적인 가족의 문제를 연구해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가족의 위기와 해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 시야에서 가족의 변화상을 살핀 책으로는 《변화하는 가족》(데이비드 엘킨드, 이동원 외, 이화여자출판부)과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이미경, 공감)를 꼽을 수 있다.

《변화하는 가족》은 근대와 포스트모던 시대에 가족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지은이는 근대와 포스트모던 시대에 가족의 문제로 등장한 '불균형'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탈 가족'을

내놓는다. 바이탈 가족은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어떠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 속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 능력과 자질이 함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족의 위기'》는 가족논쟁의 기원으로 '아메리카적 핵가족' 개념을 제시한다. 이 개념은 세계경제의 패권국가에 적합한 노동력 재생산 제도다. 가족임금은 핵가족의 물질 토대인데, 1970년대 불황 이후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토대인 1차 성혁명은 1920년대에 진행된 구애(求愛)구조의 전환에서 유래했고, 1960년대 이후 진행된 2차 성혁명은 핵가족의 가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한다. 즉 아메리카적 핵가족은 물질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 눈에 띄어

가족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다룬 책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출간된 《가족사회학》(조정문 외, 아카넷)은 가족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들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해 가족현상을 설명하면서 가족에 관한 쟁점을 다룬다. 가족의 정의에서 시작해 사회변동, 친족 등과 가

족의 관계, 가족의 형성과정과 가족형성의 현대적 특성, 현대사회 가정의 병폐, 미래가족에 이르기까지 분석내용이 충실하다.

앙드레 뷔르기에르 등이 엮은 《가족의 역사 1》(정철용, 이학사)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민족별 가족 구성의 기원과 특성 그리고 변화과정 등을 고찰한다. 기존의 가족연구가 사회학적 관점에 치우친 반면, 미시사적인 분석틀과 인류학적 구체성을 적용한 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가족이론의 개념과 쟁점을 폭넓게 소개한 데이비드 실의 《가족학 이론의 현황과 쟁점》(최연실 외, 하우), 가족의 내부에 잠재한 변증법적 구조를 밝힌 《헤겔의 가족철학》(배장섭, 얼과알) 등도 읽어볼 만하다.

《...현황과 쟁점》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이론적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기 위해 전체적인 개념들을 제공한다. 실증주의, 표준사회학이론까지 관점을 확장한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헤겔의 가족철학》은 가족의 구조와 한계, 인식결과를 헤겔 변증법의 이성적인 체계와 논리에 따라 고찰하는데, 헤겔의 인륜체계인 가족의 즉자성(卽自性)에 대해 심도있게 탐구했다. —차정신 기자

강한 응집과 결속에서 개인의 느슨한 결합으로 가족 변화해

《가족사회학》 펴낸 조정문씨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인 조정문씨(41)는 최근 펴낸 《가족사회학》에서 가족현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현대 한국 가족의 특수성, 현대 정보사회와 가족변화의 상관성을 고찰한다.

'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혈연에 기초해 배타적인 성생활, 경제적 협동, 공동거주, 자녀양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거나 무자녀가족 등 가족이라고 불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가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유사 가족들도 가족의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가족을 '친밀감과 지속적인 상호의존을 교환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가족에는 여러 유형이 가능하며, 아주

밀도가 높은 가족부터 밀도가 낮은 가족까지 다양한 가족생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 가족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도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부모 부양, 친족관계, 조상제사 등의 영역별 변화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안 가족도 등장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확산되고, 결혼관계의 배타성과 독점성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도 나타난다. 이런 변화는 강한 응집과 결속, 몰입성과 배타성 그리고 항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점차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느슨한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생활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격차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정보격차는 가족구성원간의 단절을 초래한다. 정보화에 앞서서 자녀와 부모와의 단절, 남편과 아내간의 단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보격차는 정보사회에 존재하는 문맹집단과 같은 것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저하,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일으킨다."